

초급 활동집 교사 지침서

<제 1 과>

■ **활동목표** : ‘입니다’ ‘입니까?’를 사용하여 처음 만났을 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하기

■ **사전준비** : <나의 명함>페이지를 학생수 대로 복사해서 잘라 놓는다(학생 1 인당 장씩), 풀

■ **진행방법**

① 학생들은 받은 3 장의 명함에 자신의 이름, 국적, 직업을 써 넣는다.

② 학생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3 명)과 명함을 교환한다. 이때 명함을 교환하면서 <활동 준비>에서 제시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사를 나눈다.

③ 받은 명함 3 장은 <친구 명함을 붙이는 곳>에 붙인다.

④ 숙제로 <정리>부분에 자기소개 내용을 쓰게 한다.

■ **도움말**

· 학생이 자기 ‘직업’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모르는 단어를 제시해 준다.

·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는 격식적인 상황(회사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났을 때 등)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안 쓴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

<제 2 과>

■ **활동목표** : ‘입니까?’ 질문에 긍정 및 부정표현으로 대답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질의응답으로 정한 사람 알아 맞추기

■ **진행방법**

① 학생들은 ①~⑥ 카드 중에서 1 장씩 받는다. 카드에는 <자신의 정보>와 <찾을 사람 정보>(핑크색 부분)이 써 있다.

②학생들은 ‘국적→직업’ 순으로 질문하면서 자신의 카드에 써 있는 인물을 찾는다.

■도움말

- 학생들이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사는 계속 관찰하다가 필요하면 개입하기도 해야 한다. 누구에게 질문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씨, 이번에는 △△씨하고 같이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짝을 지어 준다.
- 학생들은 아직 한국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입니다’, ‘-이/가 아닙니다’를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제 3 과>

■활동목표 : ‘-예요/이에요’ 문형을 사용하여 ‘이, 그, 저’의 위치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물건 이름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기

■진행방법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②학생 A는 ①~⑥번까지, 학생 B는 A~F 까지 ‘이, 그, 저’를 사용하여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한다. .

■도움말

- 여러 가지 물건 이름이 나오므로 활동 전에 <참고 어휘>를 같이 읽고 물건의 이름을 먼저 익히도록 한다.
- 활동이 끝난 후에 교사는 교실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연습을 해도 좋다.
- ‘이, 그, 저’는 화자와 청자, 물건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제 4 과>

■활동목표 : ‘있습니다/없습니다’ 표현이 물건, 사람, 추상명사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제시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기

■ 진행방법

- ① 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 <워크시트>에 제시된 물건, 사람 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여 체크한다.
- ③ 체크가 끝나면 문장을 만들어 발표한다.
- ④ 숙제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에 쓴다.

■ 도움말

- <워크시트>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할 법한 것들 (예 : 책, 남자 친구, 데이트 등)에 대해 교사와 함께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것도 좋다.

<제 5 과>

- 활동목표 : ‘있습니다/없습니다’ 표현이 물건, 사람, 추상명사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정보차 메꾸기(information gap)

■ 진행방법

- ① 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두 사람의 시트에는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 있다.
- ② 학생 A 는 상대방에게 ①~⑤의 물건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물어 보고, 해당되는 위치에 번호를 적는다.
- ③ 학생 B 도 ㉠~㉡를 같은 방법으로 질문하고 워크시트에 알파벳을 적는다.
- ④ 질의응답이 끝나면 서로 워크시트에 맞게 적었는지 상대방의 시트를 보면서 확인한다.

■ 도움말

- 위치명사를 수업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동작을 쓰면서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이 때 조사‘에’ 를 붙여서(예 : 앞에[아페]) 암기를 시키면 발음변화에 대해서도 바로 익숙해질 수 있다.

<제 6 과>

■ **활동목표** : ‘-ㅂ/습니다’, ‘-고’ 문형을 이해하고, 조사 ‘-에’ ‘-에서’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 **사전준비** : 카드①~⑥을 복사해서 잘라 놓는다(학생 1 인당 1 장씩 가질 수 있도록).

■ **진행방법**

- ① 학생들에게 카드를 1 장씩 나눠준다.
- ② 학생들이 각자 자기 카드를 눈으로 읽게 한다.
- ③ 학생들은 다른 2 명의 친구에게 ‘주말에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인터뷰를 해서 시트에 메모해 둔다.
- ④ 인터뷰가 끝나면 메모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

■ **도움말**

- 카드를 나눠 줄 때 잘라 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고 학생들이 직접 고르게 하면 활동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 학생수가 6 명 이상인 경우 인터뷰할 때 같은 카드를 가진 학생들이 짝이 안 되게 한다.

<제 7 과>

■ **활동목표** : 부정형 ‘안-’, ‘-지 않습니다’와 긍정형 ‘-ㅂ/습니다’를 같이 연습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 **진행방법**

- ① 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 학생 A,B는 각자의 <인터뷰 시트>를 가지고 한국어로 질문한다. 상대방의 응답을 듣고 시트 오른쪽의 ‘네’, ‘아뇨’ 부분에 체크한다.
- ③ 인터뷰가 끝나면 메모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발표한다.
- ④ 숙제로 각 질문 항목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쓰게 한다.

■도움말

- 발표할 때 부정형 표현은 ‘안-’, ‘-지 않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 과>

■활동목표 : 한자어 숫자로 여러 가지 단위 명사 연습을 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정보차 메꾸기(information gap)

■진행방법

-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학생 A,B는 각자의 시트를 가지고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가게 위치를 서로 묻는다. 그 후에 가격, 전화번호, 세일을 상대방에게 질문해서 시트에 채워 넣는다.
- ③질의응답이 끝나면 서로 상대방 시트를 보면서 정답을 확인한다.

■도움말

- 학생들 레벨에 비해 <워크 시트> 내용이 간단하다면 각 가게 부분에 가격,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써도 된다.

<제 9 과>

■활동목표 : ‘-아/어요’ 문형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진행방법

-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학생 A,B는 각자의 <인터뷰 시트>를 가지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 질문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응답을 듣고 시트 오른쪽 부분에 간단하게 메모해 놓는다.
- ③인터뷰가 둘 다 끝나면 메모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
- ④숙제로 각 질문 항목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쓰게 한다.

■도움말

- 학생들이 응답내용을 메모할 때 일본어 표기도 가능하다. 메모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제 10 과>

■활동목표 : 고유어 숫자로 여러 가지 단위 명사 연습을 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정보차 메꾸기(information gap)

■진행방법

-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학생 A,B는 각자의 시트를 가지고 공란 부분(-장, -번, -명 등)을 상대방에게 질문해서 시트에 채워 넣는다.
- ③질의응답이 끝나면 서로 상대방 시트를 보면서 정답을 확인한다.

■도움말

- 활동을 응용해서 학생들이 시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예 : 박우람 씨는 22 살입니다. 가족은 4 명입니다. ……등)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 골라 발표하게 한다.

<제 11 과>

■활동목표 : 과거형 ‘-았/었어요’와 현재형(습관, 예정)‘-아/어요’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진행방법

-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학생 A,B는 각자의 인터뷰 시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한다. 상대방의 응답내용은 시트 오른쪽 부분에 간단하게 일본어나 한국어로 메모해 놓는다.
- ③인터뷰가 끝나면 메모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
- ④숙제로 각 질문 항목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쓰게 한다.

■도움말

- <인터뷰 시트>에 있는 질문들은 각각 과거, 습관, 예정 등을 제시해서 시제를 의식해서 다른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시제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제 12 과>

■활동목표 :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가 어떻게 되세요?’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상대방 정보를 묻고 대답하기

■사전준비 : 카드①~⑥를 복사해서 잘라 놓는다(학생 1 인당 1 장씩 가질 수 있도록).

■진행방법

①학생들에게 카드 1 장씩 나눠준다.

②학생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카드에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3 명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때 상대방의 이름, 나이, 가족, 전화번호를 묻고 메모해 둔다. 메모할 때는 책에 있는 그림 카드를 보지 않게 한다.

③질의응답이 끝나면 상대방과 카드를 교환해서 메모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도움말

- 나이를 묻고 대답할 때 <활동전 준비>에서 제시한 표현들(‘저하고 같으시네요.’, ‘젊어 보여요.’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제 13 과>

■활동목표 : 경어표현과 정중표현 각각의 과거형(‘-(으)셨어요’, ‘-았/었어요’)과 비과거형(습관, 예정 : ‘-(으)세요’, ‘-아/어요’)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진행방법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②학생 A,B는 각자의 인터뷰 시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한다. 상대방의

응답내용은 시트 오른쪽 부분에 간단하게 일본어나 한국어로 메모해 놓는다.

③인터뷰가 끝나면 메모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

④숙제로 각 질문 항목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쓰게 한다.

■도움말

- 인터뷰 활동 전에 경어표현과 정중표현 각각의 과거형(‘-(으)셨어요’, ‘-았/었어요’)과 비과거형(습관, 예정 : ‘-(으)세요’, ‘-아/어요’)의 접속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는 것이 좋다.

<제 14 과>

■**활동목표** : ‘-지만’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문장 만들기 게임

■**사전준비** : <‘-지만’ 카드>를 복사해서 자른 후에 봉투에 넣어 놓는다. <형용사, 동사 카드>도 복사해서 자른 후에 학생들이 모두 잘 볼 수 있게 테이블 중앙에 늘어 놓는다.

■진행방법

①학생은 <‘-지만’ 카드>봉투에서 카드 1 장을 뽑아서 제시된 문장을 ‘-지만’의 형태로 바꿔서 읽는다.

②이 때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이 읽은 문장을 듣고 역접의 의미로 뒤에 올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서 <형용사, 동사 카드>에서 1 장을 골라서 말한다.
만든 문장이 맞으면 고른 카드를 자기 앞으로 가지고 온다.

③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형용사, 동사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④숙제로 ‘-지만’을 사용한 문장을 정리해서 쓰게 한다.

■도움말

- <형용사, 동사 카드>는 잘 안 보이면 확대 복사해서 자른다.
- ‘-지만’의 접속 형태는 동사와 형용사의 현재형뿐만 아니라 과거형, 경어, 명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활동 전에 형태 연습을 시킨다.
- 제시된 문장들은 대부분이 형용사이다. 활동 전에 반의어 세트로 형용사를

외우게 한다.

- 학생들이 바로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것은 뒤에 올 수 있는 문장의 주어를 힌트로 줘도 된다.
- 문장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만’이 포함된 전체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 반에 따라서는 <‘-지만’ 카드>를 미리 주고 반 전체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제 15 과>

■ **활동목표** : 희망표현을 1,2 인칭의 경우(‘-고 싶다’)와 3 인칭 경우(‘-고 싶어하다’)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 진행방법

- ① 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 학생 A,B는 우선 각자 <인터뷰 시트>의 <나(私)> 부분에 자기 희망을 써 놓는다.
- ③ 다 쓴 후에 학생 A,B는 각자의 <인터뷰 시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질문해서 응답내용은 시트 오른쪽 부분에 메모해 놓는다.
- ④ 인터뷰가 끝나면 메모한 내용을 <발표>부분의 표현을 참고해서 발표한다.

■ 도움말

- 발표할 때 상대방과 의견이 같을 경우에는 ‘저도 -고 싶고’ 표현을 쓰지만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저는 -고 싶지만’ 표현을 쓴다는 것을 지도한다.

<제 16 과>

■ **활동목표** : ‘-아/어서’ 표현으로 이유 및 원인을 말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두 장의 그림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기

■ 진행방법 :

- ① 전체 학생수에 따라 개인 또는 2~3 명이 한 팀이 된다.

②<이유, 원인 카드>와 <결과 카드>중에서 각각 1 장씩 선택해 '-아/어서'표현으로 문장을 만들게 한다.

③팀 별로 돌아가면서 1 문장씩 발표한다.

④정확하게 문장을 만든 팀이 승자가 된다. 맞는 문장을 많이 만든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도움말 :

- 발표를 시키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준다.
- <이유, 원인 카드>와 <결과 카드>가 반드시 1:1 이 아니어도 된다. 하나의 이유에 복수의 결과 카드를 연결시켜도 된다. 활동 후에는 카드에 없는 내용으로 이유, 원인이나 결과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제 17 과>

■활동목표 : '-아/어도 돼요', '-(으)면 안 돼요'를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정보차 메꾸기(information gap)

■진행방법

①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②각자 자신의 시트를 가지고 학생 A는 ①~④번, 학생 B는⑤~⑧를 그림을 보면서 허가를 받는 표현을 질문하고 대답하게 한다. .

③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허락이면 자신의 시트에 ○, 허락하지 않으면 ×를 표시한다.

④질의응답이 끝나면 서로 상대방의 시트를 보면서 정답을 확인한다.

■도움말

- 시트 그림의 장면에 따라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로 확장시켜서 말할 수도 있다. (예 : 택시 앞에 앉는다, 라면 등은 편의점 안에서 먹을 수 있다, 등)

<제 18 과>

■활동목표 : '-(으)니까요?', '-(으)비시다', '-(으)러'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여행 갈 예정을 정하고 만날 약속을 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룰 플레이(여행 약속)

■ **진행방법**

- ① 학생을 2 사람씩(A,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 우선 학생 A,B는 누가 먼저 가자고 할지 정한 후에 함께 워크시트를 보면서 여행 목적지, 가서 뭐 할지, 교통수단,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③ 연습한 대화를 한 팀씩 발표한다.
- ④ 숙제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에 쓰게 한다.

■ **도움말**

- <대화 예>는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서 룰 플레이 전에 할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할지 정한다.
- 룰 플레이는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흐름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룰 플레이를 잘하는 팀은 <활동 준비>에서 제시한 ‘不同意’표현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19 과>

■ **활동목표** : ‘-아/어 주시겠어요?’, ‘-아/어 주세요’ 표현을 여러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상황에 맞는 카드를 골라 의뢰 표현을 말하기

■ **사전준비** : <상황 카드>와 <동사 카드>로 나누어서 잘라 놓는다. 자른 <상황 카드>는 봉투에 넣어 둔다. 자른 <동사 카드>는 학생 모두가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깔아 놓는다.

■ **진행방법**

- ① 학생 한 사람이 <상황 카드>를 1 장 뽑은 후에 모두 들을 수 있게 크게 읽는다.
- ② 다른 사람들은 상황카드 내용을 듣고 이 때 쓸 수 있는 의뢰 표현을 동사 카드 중에서 1 장을 선택해 ‘-아/어 주시겠어요?’, ‘-아/어 주세요’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 선택한 카드는 자기 앞으로 가지고 온다.

③돌아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가 끝날 때까지 진행한다.

④마지막에 <동사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도움말

- <상황 카드>의 ‘-ㅂ/습니다’형을 잘 못 알아듣는 반에서는 ‘-아/어요’형으로 바꿔서 읽어도 된다. 단, 이때 불규칙 동사에 주의한다.
- 학생들의 인원이 많아 <동사 카드>가 작은 경우에는 활동 전에 확대 복사해서 잘라 둔다.
- 학생들이 상황카드 읽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교사가 대신 읽는다.

<제 20 과>

■활동목표 : ‘-(으)ㄴ 수 있다’의 가능표현을 포함해 초급 I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문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자기소개하기

■진행방법

①학생들에게 먼저 <활동 준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아니면 전체가 문제를 읽으면서 한 사람씩 대답해 보게 한 후 각자 자신의 대답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②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시킨다.

③숙제로 발표한 내용을 문장으로 써 오게 한다.

■도움말

- 반 전체가 문제를 읽고 한 사람씩 대답하게 할 경우 자신의 대답은 같이 생각하면서 메모해 두도록 한다.
- 메모를 보면서 발표하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긴 문장을 쓰는 시간을 주고 읽으면서 발표하게 한다.
- 자기소개는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암기해 두면 좋다는 것을 강조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시킨다.

※ 21 과부터는 ‘데키루 한국어 초급 2’의 과에 그대로 링크하지 않으므로 활동 시기를 꼭 체크하세요!!!

<제 21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 과 ‘-아/어서’ 학습 후

■활동목표 : 유사한 표현인 순차의 ‘-아/어서’와 병렬의 ‘-고’의 용법을 비교한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인터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A, 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 질문하게 한다.
- ③인터뷰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듣게 한다.
- ④인터뷰가 끝난 후에 짝 별로 한 문장씩 발표 시킨다.
- ⑤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문장으로 정리해 오게 한다.

■도움말

· ‘-고’는 단순한 나열일 뿐이지만, ‘-아/어서’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차이점을 충분히 숙지시킨다.

· 기본 문법 설명에서 어긋나는 항목은 예외로 생각하도록 한다. (착용동사 : 입고 가다, 신고 가다, 쓰고 가다, 타고 가다, 일어나서 운동하다 등)

<제 22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 과~3 과 ‘동사의 연체형’ 학습 후

■활동목표 : 동사의 연체형 ‘-(으)ㄴ/ 는/ (으)ㄹ’의 용법을 비교한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인터뷰 후에 연체형으로 발표하기

■사전준비 : 인터뷰 카드를 복사해서 잘라 둔다. (1 명당 1 장)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A~F 6 장의 카드에서 한 장씩 골라서 갖는다.
- ②<인터뷰 시트>에 있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 2 사람에게 동시에 질문하게 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듣게 한다.

③인터뷰가 끝난 후에 인터뷰 내용을 연체형으로 바꾸어서 발표 시킨다.

④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문장으로 정리해 오게 한다.

■도움말

- ‘-(으)ㄴ/ 는/ (으)ㄹ’의 시제가 일본어가 조금 다른 점을 인지 시킨다.
- 시제보다는 그 동작을 이미 했는지(-(으)ㄴ), 이제 할 동작인지(-(으)ㄹ),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인지(-는)가 중요하다.

<제 23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 과~4 과 ‘동사, 형용사의 연체형’ 학습 후

■활동목표 : 형용사와 동사의 연체형을 종합적으로 연습한다.

■활동형태, 내용 : 팀 활동 / 연체형을 활용해서 광고문 만들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각 팀 별로 광고할 장소를 하나씩 고르게 한다.
- ③고른 장소들의 빈 칸에 들어갈 형용사와 그 밖에 광고할만한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 ④토론이 끝나면 연체형을 이용해서 직접 광고문을 작성하게 한다.
- ⑤활동이 끝난 후에 각 팀 별로 광고를 발표한다.

■도움말

- 연체형을 전체적으로 복습해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동사와 형용사를 제시한다.
- ‘- (으)ㄹ 수 있다’는 연체형으로 ‘-는’을 쓴다. 특히 ‘-하다’를 전부 동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활동 전에 연습을 시키는 것도 좋다. (친절하다, 조용하다 등)

<제 24 과>

■활동시기 : 초급Ⅱ 5 과 ‘-(으)ㄴ/는데’ 학습 후

■활동목표 : ‘-(으)ㄴ/는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팀 활동 / 빈 칸에 대사 채우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3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각 팀 별로 ‘설명, 남자, 여자’로 나뉘서 읽어가면서 ‘-(으)ㄴ/는데’를 써서 빈칸을 채우게 한다.
- ③활동이 끝난 후 팀마다 모두 발표 시켜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한 팀만 발표시킨 후 다른 말을 넣은 부분만 체크해도 괜찮다.
- ④줄거리 정리하는 것은 숙제로 내준다.

■도움말

- ‘-(으)ㄴ/는데’ 용법은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미 ‘하고 싶은 말의 앞에 두는 말’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의미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도록 한다.

<제 25 과>

■활동시기 : 초급Ⅱ 8 과 ‘-기 때문에’ 학습 후

■활동목표 : ‘-기 때문에’, ‘-(으)니까’, ‘-아/어서’ 이유 표현을 비교한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이유와 결과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완성하기

■사전준비 : 카드를 모두 잘라서 <이유>와 <결과>로 나누어서 각각 봉투에 넣어둔다. 두 명이 ‘<이유봉투>+<결과봉투>’ 한 세트를 가질 수 있게 준비한다.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 짝을 지어 놓고 카드 세트를 나누어 준다.
- ②‘이유+ 결과’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도록 시킨다.
- ③문장이 완성 되면 손을 들게 해서 문장이 잘 완성 됐는지 체크한다.
- ④빨리 완벽한 문장을 만든 순서대로 승패를 정한다.
- ⑤활동이 끝난 후에는 각 팀 별로 한 문장씩 읽게 해서 반 전체가 같이 만든 문장을 확인한다.

■도움말

- ‘-기 때문에’, ‘-(으)니까’, ‘-아/어서’를 모두 이유 표현으로 쓸 수 있으나

뒤앙스적인 차이는 아주 적기 때문에 활동 준비에 나온 것처럼 정리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 ‘-아/어서’가 가장 무난한 이유 표현으로 쓰이고, ‘-기 때문에’는 논리적인 글(설명문, 주장하는 글)에 많이 쓰인다. ‘-(으)니까’는 주관적인 이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명령문, 청유문 이외에도 ‘-(으)르게요’, ‘-아/어야 되다/하다’와도 같이 쓰인다.

<제 26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0 과 학습 후

■활동목표 : ‘-아/어 보다’를 이용해서 여러 상황에서 물건 사기를 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롤 플레이(물건 사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A, 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각 팀 별로 가게를 하나씩 고르게 한다.
- ③각 팀 별로 점원과 손님 역을 정하고 롤 카드에 지시된 순서대로 대화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 ④대화를 완성한 후에 각 팀 별로 대화를 발표한다.
- ⑤발표할 때 다른 팀은 ‘뭘 사러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모하도록 한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질문-대답으로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한다.
- ⑥숙제로 두 사람이 말한 대화를 직접 써 오게 한다.

■도움말

·반에 따라서 롤 플레이가 힘든 반도 있을 것이다. 그 때는 <회화예>를 롤플레이 전에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발표 후에 전체 정리로 <회화예>를 보여 주는 것도 좋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조금 어렵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자고 독려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

<제 27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1 과 ‘ㄹ 불규칙’ 학습 후

■활동목표 : 불규칙 활용을 종합해서 복습한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활동 / 빙고 게임(불규칙 활용)

■사전준비 : 빙고 카드를 복사해서 잘라서 인원 수대로 준비해 둔다.

■진행방법

①학생들에게 빙고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②룰을 설명한다. 교사는 ‘~의形に變えてみよう’ (예 : -아/어요, -았/었어요, -ㅁ/습니다, -(으)면, -(으)세요, -(으)니까, -고, -(으)ㄴ/는/(으)ㄹ 등)라고 지시를 내리면 학생들은 순서대로 활용한 형태로 빙고를 부른다.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다른 지시를 내린다.

게임 예 : (학생 6명인 경우)

선생님 : 「-아/어요」의形に變えてみましょう。

학생 1 : 더워요

학생 2 : 멀어요

...

학생 6 : 불러요

선생님 : 「-(으)면」의形に變えてみましょう。

③한번 빙고 세 줄이 완성되면 손을 들고 ‘빙고’를 외치면 교사가 체크한 후에 게임이 끝난다.

■도움말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연습 게임을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게임 진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학생들 수준이 높은 반에서는 활용한 형태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말하는 순서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 학생들 수준이 높지 않은 반에서는 틀려도 교사가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면서 다른 학생과 같이 정확한 활용을 연습하게 한다.

•빙고판에는 불규칙의 예외 즉, 규칙 활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

시킨다.

· 학생들은 불규칙 활용 용언의 규칙을 생각해서 말하느라고 보통 회화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표를 그려서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반복 연습을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8 과>

■ **활동시기** : 초급Ⅱ 11 과 ‘-(으)르게요’ 학습 후

■ **활동목표** : ‘-(으)르게요’의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대사 만들기

■ **진행방법**

- ① 학생들을 2 명씩(A, 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 학생들이 각 장면의 상황을 이해하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을 수 있게 한다.
1~5 번까지 한 사람이 왼쪽 사람 역할을 하면, 6~10 번까지는 역할을 바꿔서 오른쪽 사람 역할을 하게 한다.
- ③ 각 팀의 연습이 끝나면 한 팀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켜서 활동을 확인한다.

■ **도움말**

- ‘-(으)르게요’는 ‘-(으)르 거예요’와 자주 비교된다. ‘-(으)르게요’는 상대방이 있어서 약속을 하거나 의지를 표명하는 문법임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으)르 거예요’는 상대방과는 관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 ‘-(으)르게요’는 1 인칭만 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의문형으로는 쓰일 수 없다.

<제 29 과>

■ **활동시기** : 초급Ⅱ 12 과 ‘-아/어 있다’ 학습 후

■ **활동목표** : ‘-아/어 있다’와 ‘-고 있다’의 용법을 비교한다.

■ **활동형태, 내용** : 팀 활동 / 현장 리포트(사인회장에서)

■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3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제시 단어를 전부 사용해서 그림을 보면서 리포트를 하게 한다.
- ③팀 별로 활동이 끝나면 발표를 시킨다. 한 팀이 전부 다 발표를 해도 되고 각 팀이 한 문장씩 나누어서 발표를 해도 괜찮다.

■도움말

- ‘-아/어 있다’와 ‘-고 있다’의 가장 큰 차이는 ‘동작의 유무’이다. ‘-고 있다’는 현재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어 있다’는 동작이 끝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없다.
- ‘-고 있다’의 예외 형태를 숙지시킨다.
-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는 어려워하는 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리포트를 시키기 전에 학생들과 같이 미리 제시 단어로 ‘-고 있다’인지 ‘-아/어 있다’인지 이야기를 해 본 후에 활동을 시키도록 한다.

<제 30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3 과 ‘-(으)ㄴ/는/(으)ㄴ 것 같다’ 학습 후

■활동목표 : ‘-(으)ㄴ/는/(으)ㄴ 것 같다’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팀 활동 / 추측해서 문장 만들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3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팀 별로 생각하고 내용을 상의할 시간을 준다.
- ③상황마다 발표를 시킨다. 돌아가면서 추측한 문장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상황마다 많이 발표한 팀을 정해 놓는다. 3 가지 상황을 제일 많이 추측한 팀이 우승이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를 칠판에 적어 놓고 시작하면 좋다.

	A 팀	B 팀	C 팀
지각한 회사원	3 文	4 文	2 文
생일 파티	3 文	3 文	5 文
유학 는 딸	2 文	2 文	3 文
합計	8 文	9 文	10 文

■도움말

-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추측 표현뿐만 아니라 단정이 아닌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표현, 즉 일본어의 ‘~と思う’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 ‘명사-같아요(비유, ‘(まるで)~のようだ’)와 ‘명사-인 것 같아요(추측, ‘~だと思う)’는 다른 표현이다. ‘학생 같아요.’ 그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학생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학생인 것 같아요.’는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굴이나 복장을 보니까 학생인 것 같다는 뜻이다.
- 그림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 회사원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케이크가 맛있을 것 같아요.’ 등 주관적 추측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 31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5 과 ‘-(으)ㄴ/는 편이다’ 학습 후

■활동목표 : ‘-(으)ㄴ/는 편이다’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개인의 취향과 습관을 인터뷰해서 발표하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A, 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 질문하게 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듣게 한다.
- ③인터뷰가 끝난 후에 나의 경우도 체크하게 한다.
- ④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공통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발표하게 한다.

■도움말

- 발표할 때 상대방과 나의 경우가 공통일 때는 ‘-(이)고’로 연결하고 대조의 경우에는 ‘-인데’를 사용해서 연결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준다.

<B 상의 시트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Bさんのインタビューシート

質問	相手	私
1. 旅行はよく行きますか。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2. 料理は上手ですか。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3. 月末は忙しいですか。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4. 辛い食べ物は得意ですか。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뇨



発表

(相手と異なる)씨는(으)ㄴ/는 편인데 저는(으)ㄴ/는 편이에요.

(相手と同じ)씨도(으)ㄴ/는 편이고 저도(으)ㄴ/는 편이에요.

<제 32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6 과‘-(으)니 지 ~되다’와 ‘-(으)려고 (하다)’ 학습 후

■활동목표 : ‘-(으)니 지 ~되다’와 ‘-(으)려고 (하다)’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 직접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개

■사전준비 : 교과서의 그림 페이지를 복사해서 잘라 둔다. 뒷면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게 그림이 위로 오게 해서 테이블 중앙에 놓는다.

■진행방법

①학생들에게 카드 1 장을 고르게 한다.

②학생들에게 자신이 고른 카드의 인물에 대한 <프로필>을 읽어 볼 시간을 주고
※표시가 있는 빈 칸은 ‘-(으)니 지 ~되다’와 ‘-(으)려고 -아/어요’를 사용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③준비가 끝나면 고른 카드의 <인물 그림>을 보여 주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한다.

④한 사람이 자기소개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들은 것을 ‘듣기 시트’에 메모하게 한다.

⑤발표가 끝난 후에 반 전체가 같이 잘 알아들었는지 맞춰 본다.

■도움말

· 반 인원이 6 명 이상인 경우에는 2~3 명 씩 한 조로 나누어서 다른 내용도 추가해서 자기소개를 만들도록 시킨다.

· ‘-(으)니 지 ~되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년 됐어요’라는 말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연습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1 년 2 개월 된 경우에는 ‘1 년 조금 넘었어요.’, 2 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경우에는 ‘얼마 안 됐어요.’등 다양한 표현을 미리 제시해 준다.

· 교과서 できる韓国語-初級Ⅱ에는 ‘-(으)려고 하다’밖에 없기 때문에 ‘-(으)려고’ 뒤에 다른 동사가 오는 예문을 들어 주는 것도 좋다. ‘한국에 유학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결혼 10 주년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등을 활동 전에 미리 연습해 본다.

<제 33 과>

- 활동시기 : 초급Ⅱ 17 과 ‘-기 쉽다/ 어렵다/ 편하다/ 힘들다’ 학습 후
- 활동목표 : ‘-기 쉽다/ 어렵다/ 편하다/ 힘들다’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에 대해 의견 나누기
-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시트>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게 한다.
- ③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서로 이야기하게 해서 그 팀이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④제시된 주제 이외에도 두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한다.
- ⑤활동이 끝난 후에 각 팀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도움말

- 그 밖에 주제로 ‘여자가 혼자 살기에 어때요?’, ‘할머니들이 다니기 어때요?’, ‘밤에 쇼핑하기 어때요?’등이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생각 나는 것을 물어 본 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교사가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 의견을 교환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꼭 말하게 한다. 이유 표현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다.

<제 34 과>

- 활동시기 : 초급Ⅱ 18 과 ‘-겠어요/겠네요’ 학습 후
- 활동목표 : ‘-겠네요’ 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어린이 영어 교실 선생님이로 어떤 사람이 좋을지 의견을 나눈다.
-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지원서>와 <모집 요강>을 보면서 각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 그 때 <지원서>를 보면서 ‘-을/를 잘하겠네요’, ‘-을/를 할 수

있겠네요’등을 쓰면서 말하게 한다.

③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게 한다.

④두 사람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면 ‘○○씨를 뽑읍시다!’하고 결정하게 한다.

⑤활동이 끝난 후에 돌아가면서 팀 별로 활동을 발표 시킨다.

⑥숙제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써 오게 한다.

■도움말

·‘-겠네요’는 화자와 청자 두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한 추측이다. 활동 준비를 하면서 계속 두 사람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학생들이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의 추측도 가능하지만 근거 없이 ‘그냥 웬지 그러할 것 같다’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예 : 최근식 씨는 웬지 조용할 것 같아요 등)

<제 35 과>

■활동시기 : 초급Ⅱ 19 과 ‘-아/어 주다/주시다/드리다’ 학습 후

■활동목표 : ‘-아/어 주다/주시다/드리다’표현을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도와 주는 경우로 나뉘어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롤 플레이(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경우, 상대방을 도와 주는 경우)

■사전준비 : 카드를 모두 잘라서 봉투 A 에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경우>를 넣고, 봉투 B 에 <상대방을 도와 주는 경우>를 넣어 둔다. 한 조가 A, B 한 세트를 가질 수 있게 준비한다.

■진행방법

①학생들을 2 명씩 짝을 지어 놓고 카드를 한 세트씩 나누어 주고 활동을 시작하게 한다.

②각 팀 별로 먼저 학생 A 가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소리 내서 읽은 후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아/어 주세요’를 이용해서 학생 B 에게 말하면 학생 B 는 ‘네,

-아/어 드릴게요'라고 대답하게 한다.

③A 카드가 끝나면 학생 B가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소리 내서 읽은 후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아/어 드릴까요?'를 이용해서 학생 A에게 말하면 학생 A는 '네, -아/어 주세요'라고 대답하게 한다.

④활동이 끝나면 돌아가면서 팀 별로 발표하게 한다.

■도움말

· 기계적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활동을 구성했다. 학생들 수준이 높은 반에서는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경우와 도와 드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섞어서 해 보는 것도 좋다.

· 처음 보는 사이에서는 '주시다-드리다'를 쓰지만 아는 사이에서는 '주다'를 쓴다. 학생들이 드라마를 자주 보거나 한국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아/어 줄까요?"-"-아/어 주세요.", "-아/어 줘요."-"-아/어 주세요."를 써도 된다고 가르쳐 준다.

<제 36 과>

■활동시기 : 초급Ⅱ 20 과 '-(으)래요' 학습 후

■활동목표 : 용법이 복잡한 '-(으)래요'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으)러 거예요', '-(으)러게요'와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데이트 하는 남녀 대화 만들기

■진행방법

①학생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②처음 장면을 반 전체가 같이 읽어 본다. 교사는 이 대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대략 설명해 준다.

③각 팀 별로 남자(민수), 여자(은영)를 고르게 한다. 그리고 교사는 팀 별로 장면을 정해 준다.

④각 팀 별로 상황에 맞게 대화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때 '-(으)러 거예요', '-(으)러게요', '-(으)러 래요'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쓰게 한다.

⑤각 팀 별로 대화가 완성 되면 상황 전개 순서대로 발표를 시킨다.

■도움말

· 학생들이 특히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문법이다. 하지만 활동 준비를 통해 용법의 차이를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어에는 없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역해 주는 것보다는 상황이나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비교해서 알려 준다.

· 오류문이 있을 때는 발표 중간에 끊지 말고 발표가 끝나고 반 전체가 다 같이 어떤 말이 더 적절한지 이야기하면서 의지 표현을 구별시켜 주도록 한다.

<제 37 과>

■활동시기 : 초급Ⅱ 21 과 ‘-아/어지다’ 학습 후

■활동목표 : ‘-아/어지다’와 ‘-게 되다’를 비교한다.

■활동형태, 내용 : 팀 활동 / 그림을 보면서 ‘변화’의 표현 사용해서 묘사하기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 짝을 지어 놓는다.
- ②각 팀은 상황 3 개를 미리 보면서 변화한 내용을 생각해 두게 한다.
- ③각 팀 별로 변화한 내용을 한 문장씩 발표한다.
- ④문장을 많이 만든 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도움말

· ‘형용사-게 되다’도 성립되지만 ‘형용사-아/어지다’와의 차이를 일본 학생들이 알기에는 어렵다. 초급에서는 ‘형용사-아/어지다’, ‘동사-게 되다’로 나눠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제 38 과>

■활동시기 : 초급Ⅱ 23 과 ‘-(ㄴ/는)다고 해요’ 학습 후

■활동목표 : ‘-(ㄴ/는)다고 해요’의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짝 활동 / 정보차 메꾸기(information gap)

■진행방법

- ①학생들을 2 명씩(A, B) 짝을 지어 놓는다.

- ②학생들이 내용을 대강 이해할 수 있게 읽어 볼 시간을 준다.
- ③학생 A 와 학생 B 는 각자 빈 칸을 상대방에게 간접화법으로 물어서 채우게 한다.
- ④활동이 끝나면 서로 빈 칸을 보여 주고 맞게 들었는지 체크하게 한다.
- ⑤각 팀이 끝나면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게 한다.

■도움말

- ‘-(ㄴ/는)다고 해요’는 품사에 따라 접속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문법이다. 반복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게 한다.
- 바로 활동에 들어가기 어려운 반에서는 교사가 블로그의 대략적인 내용을 대충 설명해 준다.
-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면 빈 칸 이외의 내용도 교사가 질문해서 학생들이 간접화법으로 대답하게 한다.

<제 39 과>

■활동시기 : 초급Ⅱ 22 과~25 과 ‘간접 화법’ 학습 후

■활동목표 :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접속형이 달라지는 간접 화법을 익힌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활동 / 카드에 나온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서 말하기

■사전준비 : 교과서의 문장이 있는 페이지를 복사해서 잘라 둔다. 봉투에 넣어서 한 세트만 준비한다.

■진행방법

- ①학생들에게 봉투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 써 있음을 알려 준다.
- ②한 장씩 뽑아서 ‘○○이/가 -(ㄴ/는)다고/냐고/자고/(으)라고 했어요’의 형태로 반 학생들에게 전하게 한다.
- ③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은 칠판에 써 두고 활동이 끝난 후에 반 전체가 반복 연습할 수 있게 한다.

■도움말

· 간접 화법을 문장의 의미가 아닌 단순히 형태만 보고 전환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영화 볼까요?”를 “영화 보냐고 했어요.”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형태가 아닌 의미를 보고 파악하도록 한다.

<제 40 과>

■활동시기 : 초급Ⅱ 전과 학습 후

■활동목표 : 초급Ⅱ 에 나온 문법을 모두 알고 초급Ⅱ에 맞는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다.

■활동형태, 내용 : 반 전체 활동 / 자기 소개

■진행방법

① 학생들에게 먼저 <활동의 준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아니면 전체가 문제를 읽으면서 한 사람씩 대답해 보게 한 후 각자 자신의 대답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②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시킨다.

③ 숙제로 발표한 내용을 문장으로 써 오게 한다.

■도움말

· 초급Ⅱ가 돼도 자기소개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곤란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초급Ⅱ에서 배운 문형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